

불미전 대상 정용성씨 조각 '願'

제18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에서 경주 남산의 불에 관세음 보살좌상을 조각한 전통조각작품 '願(願)'을 출품한 정용성(42세)씨가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전통과 현대부분으로 나눠 총 6개분야 193점이 접수된 이번 불교미술대전에서는 대상 외에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 특선 16점, 입선 25점 등 총 4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불교미술대전은 대상과 우수상 수상작의 종단 귀속 방향과 규격과 작품 접수 불가 등 공모방침의 일부 변경으로 인해 237점의 작품이 출품된 지난 17회 때보다 응모작이 다소 줄었으며, 특히 전통부분에서의 응모작품수가 가장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성씨는 "願"은 관세음보살을 주제로 수행자가 상애(上愛)된 도상을 표현한 것으로, 하단부분 나신(裸身)의 단순화된 수행자는 본능에 의한 번뇌와 모든 것을 일탈한 상징적 표현이며, 자성의 일체성을 통해 관세음보살을 관찰할 수 있다는 나의 원이다"면서 "밖으로 보이는 관세음보살의 손은 불교보다 더 대중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세상 밖으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92년 부산 해동 용궁사 약사여래, 97년 경남 양산 천불사 마애비로한가사유상, 98년 부산 갈매사 마애삼존불 등을 조성했으며, 현재 문화재조각수리기능인 1864호다.

우수상은 현대평면분야의 회화작품 '사계' (이인, 42세)와 서예분야 '불경구대련' (장준욱, 43세)이 선정되었다. 회화작 '사계'는 상(性)과 속(俗)의 다양한 현실세계를 불화가 갖는 감동적인 색채를 이용해

6개분야 수상작 49점 선정

총 20명의 심사위원단(위원장 송영방 동국대 교수)이 뽑은 대상수상작 '願'은 전통적인 마애불 형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등을 돌리고 앉은 수행자의 표현과 밖으로 뻗은 관세음 보살의 수인 등 현대적 창조성을 가미한 노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됐다.

대상수상자 정씨는 "願"은 관세음보살을 주제로 수행자가 상애(上愛)된 도상을 표현한 것으로, 하단부분 나신(裸身)의 단순화된 수행자는 본능에 의한 번뇌와 모든 것을 일탈한 상징적 표현이며, 자성의 일체성을 통해 관세음보살을 관찰할 수 있다는 나의 원이다"면서 "밖으로 보이는 관세음보살의 손은 불교보다 더 대중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세상 밖으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92년 부산 해동 용궁사 약사여래, 97년 경남 양산 천불사 마애비로한가사유상, 98년 부산 갈매사 마애삼존불 등을 조성했으며, 현재 문화재조각수리기능인 1864호다.

우수상은 현대평면분야의 회화작품 '사계' (이인, 42세)와 서예분야 '불경구대련' (장준욱, 43세)이 선정되었다. 회화작 '사계'는 상(性)과 속(俗)의 다양한 현실세계를 불화가 갖는 감동적인 색채를 이용해

우수상
회화 '사계'
서예 '불경구대련'

조형적 실험정신을 살린 것으로 평가받았다. 서예작 '불경구대련'은 <화엄경>에 나오는 '觀曼陀華莊嚴妙 菩薩觀樹色相皆空(만다라화를 보고 그 장엄함과 절묘함을 알게 되고, 보리수로서 색과 공의 참뜻을 증거하게 된다'는 내용)이라는 구절을 관개토대왕 비문 서체로 표현한 작품이다.

장려상은 오진규씨의 현대평면 '진리를 찾아서', 손진수씨의 전통 회화 '비타경 극락도', 권지은씨의 전통회화 '산신도', 민승기씨의 현대입체 '번뇌·무념·해탈', 윤기현씨의 전통공예 '염주갑' 등이다.

이번 불미전은 대상 1000만원, 우수상 500만원의 상금이 '작품 구입비 포함'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공모방침으로 인해 불교미술인들 사이에서 비판이 끊이지 않았으나, 스님을 배제한 전문심사위원단의 구성과 일부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작품의 접수 불가 등 4월 발표된 공모방침을 철저히 지켜낸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일부 도제 불교미술인들의 불참으로 인한 질적 퇴보에 대한 우려와 심사방법의 문제, 귀속작품의 보관문제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한편 제18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의 시상식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3층에서 진행되며, 20일까지 한가람미술관 제4전시실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이은자 기자
(ejelee@buddhapia.com)



◇순수 아마추어 국악 동호인 모임인 '구음회'가 7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창립연주회를 갖는다. 사진은 9월 국립민속박물관 초청 연주회 모습.

'영산회상' 정악연주 무대

국악동호회 '구음회' 7일 국립국악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기린 영산회상음,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우리나라 전통 음악인 정악으로 연주하는 무대가 열렸다.

순수 아마추어 국악 동호인들의 모임인 구음회(회장 전승희)는 7일 오후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창립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연주회에서 선보일 영산회상은 원래 '영산회상 불보살'의 일곱자에 곡을 얹어 불렀으나 노래는 없어지고, 지금은 모두 아홉개의 기악곡으로 남아있다. 이 가운데서 가장 느린 곡인 상령산과 중령산을 제외한 7곡이 무대에 오른다. 영산회상 외에도 정악 천년만세, 단소 독주, 거문고·대금 병주와 민속악

인 가야금 산조, 성악에 해당하는 정가 2곡도 연주한다.

구음회를 이끄는 불자 전승희(47)씨는 "영산회상은 언제 끊어 나는데도 알 수 없을 만큼 느리게 이어지는 곡으로 부처님 품처럼 깊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이라며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전지루할 수도 있지만 음악속에 자신을 놓아두기만 해도 마음이 안정되고 선정에 젖어들게 한다"고 말했다. 전씨는 또 "앞으로 영산회상 중간에 도드리를 넣고 마지막에 천년만세를 덧붙인 70분짜리 가전회상의 원무기회를 갖고 싶다"고 밝혔다.



연일 응용한 문화상품 나왔다

향꽃이·촛대 등 9종 개발

꽃은 불자 최용근씨(28세, 서울산업대 도예학과 대학원)가 연일을 모티브로 한 문화상품을 개발해 화제다.

꽃소 연꽃을 좋아했던 최씨는 연꽃을 관찰하다가 연일의 선에 매력을 느껴 자신이 공부하는 도자기에 어떻게 응용할까를 고민하던 끝에 향꽃이, 촛대, 벽걸이, 브로치, 열쇠고리, 목걸이, 수저받침대, 펜던트, 접시세트 등 9종의 문화상품으로 개발해 냈다.

최씨는 이 연일 문화상품으로 지난 9월 23일~10월 3일까지 목포예술문화관에서 열린 '목포국제도예공모전'에서 문화상품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씨는 "연일의 풍만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단순하면서도 특징적으로 살려내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자기로 제작했다"면서 "앞으로도 불교적 정서가 담긴 소재를 응용해 일반인에게 친근한 생활도자기로 표현해 내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리뷰 오페라 '직지'를 보고

음악치중... 드라마 요소 빈약

최초의 한국적 오페라임을 표방한 창작 오페라 '직지'가 9월 22~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됐다. 이번 공연은 작품상 여부는 일단 접어두고라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오페라로 무대에 올린다는 기획 자체가 많은 화제를 모았다.

세계문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데다 그것을 한국적 정서에선 아직 비대중적인 오페라로 연출한다는 점, 거기다 국악을 바탕으로 판소리, 방패, 아리랑, 합창이 한데 어우러진 한국적 오페라의 터를 닦았다고 한 점 등이 주목을 받았다.

일단 서양 음악의 정수라 할 오페라에 우리 음악을 접목시킨 노력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매회 공연마다 2천명 이상의 관객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을 메웠다. 특히 바라춤으로 막을 내린 3막에서 보여준 관객들의 열렬한 반응은 우리 음악으로도 오페라를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시켜 주었다. 음악치중자가 아닌 관객

들로서는 우리 음악에 만들어져 음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운 점도 눈에 띈다. 음악과 드라마의 조화와 균형은 11월 청주 공연과 이후 순회 공연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음악에 치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드라마적 요소가 빈약하다. 장면 장면은 볼거리도 충분하나 부드럽게 이어지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직지를 간헐하게 된 배경부분인 1·2막과 주인공 묘역이 출가해 직지 강행을 결심하는 3막,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를 제작하는 4막 사이에 연일이 매끄럽지 못했다. 때문에 관객은 목련으로 간행된 직지를 '외' 금속활자로 다시 찍어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울러 공연중 후반에 벌소리가 울린다거나 지리를 옮기는 등 성숙하지 못한 관례에도는 오페라 수준을 훨씬 밑돌았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ia.com)

사이버 문화

능화스님 무용사이트

"앞으로 전진하다가 뒤로 돌아오는 것은 회화를 뜻하며, 원을 그리며 주위를 빙빙 도는 것은 원만, 손을 모으다가 폼다가 하는 것은 자비, 몸을 굽혔다가 폼다가 하는 것은 귀의를 뜻한다."

능화스님의 불교무용 사이트 (<http://www.buddhistdancing.or.kr>)에 들어가면 불교 의식무용의 범주를 산업공양(興業供養)이라며 이렇게 설명한다.

바라춤의 세계로

불교무용은 단순한 춤사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손짓 하나 발짓 하나에도 부처님에 대한 일심의 기도가 깃들어 있다. 소리로 작법하는 법패와 몸짓으로 작법하는 범무는 다르다는 것이 능화스님의 설명. 합점으로 시작하는 불교무용의 춤사위와 절차는 다양하다.

이 곳을 방문하면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바라춤, 요잡바라, 나비춤, 범고 등 불교의식무용의 세계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발딛는 법까지 세심하게 설명하고 있어 동작 하나하나를 왜 산업공양이라고 하는지 느낄 수 있다. 능화스님이 작법무 추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 각 동작의 이름과 뜻을 풀이



한 것도 이 사이트를 돋보이게 하는 매력이다. 영산재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접할 수 있다.

고이 짙은 하얀 고깔모자 위로 고아한 선율이 느껴지는 사이트. 올 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교무용의 세계에 빠져 보자.

김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철학박사 慧江 朴永玉 지음

지금은 지장보살시대

지장기도의 영험

지장기도 영험록

영기천도는 왜 해 주어야 하는가?
영기의 장애를 받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장기도를 하면 어떠한 공덕이 있는가?
지장기도의 위력에 대한 능력과 인간의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영기들의 영향력,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원력과 능력을 되새겨 본다.

값 : 8,000원
— 박혜강 —

우리 대부분의 불자들은 영가왕생법원인 천도제를 올릴 때만 지장기도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심지보살이며 지옥 중생을 모두 제도하시고 현세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까지도 대자대비로 인도하고 구제하시는 보살입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늘과 땅이 울리고 뱃속 깊은 곳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라는 음성! 지장보살님어시여! 현세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백과 고난이 어디에서 올까요? 흔히 말하는 전생의 업장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불자들은 이 세상의 힘든 모든 일들이 나의 업이러니 하고 체념할 뿐,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현세에서 받는 고통 가운데 50%는 자신도 모르게 저온 전생의 업이고, 나머지 50%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연을 맺은 수많은 인연법과 수많은 조상님의 열행이 아니라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불자들의 답답함에 속시원히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많은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의 위신력이야말로 어떠한 글과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여러 불자들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전심으로 바라며, 이 두서없는 글로 인하여 부처님이 욕되지 않기를 받고 또 빌 뿐입니다.

■ 저서/초발심자의 기초교리 지금은 지장보살시대

총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1가 51 타운힐빌딩 3층
TEL : (02)3672-7181~5
FAX : (02)3672-7186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16의 1호
TEL : (02)917-3854, 917-0408
FAX : (02)3675-3854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이천만 불자의 참대변지, 수행의 길잡이 ...

현대불교신문 '99년도 합본집 (10부 한정판매)

'94 ~ '99년 디지털 합본집 CD도 함께드립니다.

94년 창간호부터 1999년도 송년호까지 모든 기사와 보도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디지털 합본집 CD-ROM'을 증정합니다.

1999년도 한해 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의 '합본집' 진여분을 판매합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시사불교외 이해하기 쉬운 교리, 큰스님 법문, 한국문화의 중추가 되는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들에게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시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 1999년도 (201호~251호)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가격 : 1권 60,000원 (발송비 별도/지역별 실비·직접 구입시 발송비 제외)
입금구좌 :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023-25-0007-617 농협 053-01-227471 우체국 010041-0255243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02)737-0090(直), (02)737-8881(代)